

## 한국어 연결어미 “-고”의 무표성: “문 닫고 나가”를 중심으로

정인기\* · 김지영\*\*

(서강대학교)

Chung, Inkie & Kim, Jiyoung. (2022). A markedness-theoretic account of the Korean verbal suffix *-ko* in *mun tat-ko na-ka*.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0(1), 93-112. Native speakers of Korean have no problem understanding the intended meaning of the utterance *Mun tat-ko na-ka*. In fact, the expression may seem to carry semantic absurdity as it literally means ‘Close the door, and go out!’ Thus, studies have tried to analyze its meaning focusing on its pragmatic function, the semantic features of *-ko*, and the meaning span of the verb *na-ka* ‘Go out!’ However, no studies have tried to focus on its syntactic structure and the pragmatic role of the two conjuncts. In this paper, we show that the first conjunct *mun tat-ko* ‘close the door’ carries the principal meaning of *Mun tat-ko na-ka* and the whole utterance is syntactically designed to make a request of the second conjunct *na-ka* ‘go out.’ Also, we propose to attribute the interpretability of *Mun tat-ko na-ka* to the unmarkedness of the suffix *-ko* because it does not seem to add any meaning while connecting two clauses in seemingly reverse order. This proposition is testified by analyzing sentences with other semantic exceptionality. Finally, we demonstrate why *-ko* correspond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marked member of a certain linguistic category, as proposed by Jakobson (1932/1984) and Greenberg (1966). Compared to other Korean suffixes with similar meanings, *-ko* is the most frequently used suffix with the most versatile functions and is the one children acquire first.

**주제어(Key Words):** 한국어 연결어미 -고(Korean verbal suffix *-ko*), 문 닫고 나가(*Mun tat-ko na-ka* ‘Close the door, and go out!’), 담화표지 줌(discourse marker *com*), 도상성(iconicity), 유표성(markedness)

---

\* 제 1저자

\*\* 교신저자

## 1. 서론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문 닫고 나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듣는 즉시 이를 해석하여 ‘문을 닫고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 발화를 꼼꼼이 따져보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간적 순서가 뒤바뀐 듯 보여 ‘문을 닫으면서 나가라’는 것인지 아니면 ‘나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은 듯 보인다. 이 발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화용적 의미(이한규, 1999), “-고”의 역할(김지영, 2012), 동사의 의미(최호철, 2015) 등 각기 다른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본고는 “문 닫고 나가.”에서 “-고” 대신 다른 연결어미를 쓸 경우 문장의 의미가 제한되고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에 주목하여 이 발화에서 “-고”가 보이는 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김지영(2012)의 연구에서 제안한 “-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문 닫고 나가.”라는 발화 자체의 목적과 특징, 그리고 “-고”가 가진 특별한 언어학적 지위인 무표성(Jakobson, 1932/1984; Greenberg, 1966)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한국어 연결어미에서의 무표성을 논하는 드문 연구로서 한 표현의 무표적 특성이 어떻게 이례적 의미의 문장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2절에서는 “문 닫고 나가/들어와.”를 주제로 한 세 편의 연구를 검토하고, 3절에서는 “문 닫고 나가.”의 선행절의 화용적 역할과 후행절의 문법적 기능을 분석하여 발화의 의도를 알아본다. 4절에서는 “문 닫고 나가.”를 비롯한 다른 이례적인 문장에서 “-고”가 수행하는 특별한 역할에 대하여 논하고, 5절에서는 무표성에 대한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고”가 의미, 빈도, 습득의 측면에서 왜 무표성의 개념과 부합하는지 그 정당성을 보인다.

## 2. 선행 연구

지금까지 “문 닫고 나가/들어와.”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이한규(1999), 김지영(2012), 최호철(2015)의 세 편으로 파악된다. 먼저, 이한규(1999)는 연결어미 “-고”에 대한 기존의 분석이 “문 닫고 나가라.”의 두 행위를 시간적인 관계로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비논리적으로 보이게 됨을 지적한다.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문 닫고’와 ‘나가라’가 독립적인 행위의 시간적인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두 행위 사이의 밀접한 관계, 즉 문을 닫는 행위가 나가는 행위의 구성요소 혹은 조건임을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일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한규는 한국어 사용자는 나가고 들어갈 때의 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에 어떤 행위가 가해져야 하는지를 기술할 의도로 “문 닫고 나가라/들어와라.”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이치에 맞는 언어 사용의 예라고 보았다. 실

제로 문을 닫는 일이 화자에게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나가/들어와.”라고만 하고,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만 “문 닫고 나가/들어와.”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발화의 목적이 두 행위 사이의 정확한 순서를 따지는 데에 있다기보다 두 행위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있다는 이 연구의 관찰은 매우 유용해 보인다.

김지영(2012)은 이한규(1999)가 연결어미 “-고”가 이 표현에서 공간이나 순차 나열 등 어떤 의미로도 해석될 수 없다고 한 점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지영(2012)은 청자가 “문 닫고 나가.”에 대한 화자의 의도를 알면서도 간혹 “문을 닫고 어떻게 나가?” 혹은 “문 닫고 창문으로 나갈까?” 등의 반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고”가 가진 계기적 의미가 이 발화에서 일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김지영은 “-고”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이 표현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김지영은 남기심(1995)과 윤평현(2005)이 제시하는 (가) “-고”의 분류법 중 다른 연결어미로의 대치 가능성, (나) 상위 구문과의 결합 가능성, (다) 선후행절의 주어의 동일성, (라) 시상어미와의 결합 가능성, (마) 보조사와의 결합 가능성 등에 “문 닫고 나가.”를 대입한 결과, 이 발화의 “-고”에는 나열관계, 동시의 시간관계, 계기의 시간관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나열관계는 ‘문도 닫고 나가기도 해’의 의미, 동시의 시간관계는 ‘문을 닫으면서 나가’의 의미, 계기의 시간관계는 ‘나간 후에 문을 닫아’의 의미를 뜻한다. 그런데 문제는 선후행절의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이는 계기의 시간관계를 “-고”에 어떻게 포함시키느냐이다. 이에 대해, 김지영(2012)은 어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여러 방식 중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으로 여러 의미가 사슬처럼 서로 연결된다는 다의론(polysemy approach)의 방식에 의한 설명을 제시했다. 즉, “-고”는 나열관계라는 점에서 공간과 시간이 연결되고, 시간관계라는 점에서 동시적 나열과 순차적 나열이 연결되고, 시간차적 관계라는 점에서 순차와 역차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의미가 부여된 연결어미 “-고”는 “문 닫고 나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호철(2015)은 김지영(2012)이 이처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표현을 해석하고자 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고”에 후행하는 동사의 의미에 유의하여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였다. 최호철(2015)은 “문 닫고 들어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발화는 항상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을 닫는 동작이 ‘들어오다’의 의미 길이 안에 포함되면 성립하고 그 밖에 있는 경우에는 성립될 수 없다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즉, 동사 “들어와”의 의미 길이는 (가) 청자가 문 밖에 있을 경우에는 방 안에서 문 바깥쪽까지이고 (나) 청자가 문 안에 있을 경우에는 방 안에서 문 안쪽까지이다. 그러므로 방 안에 있는 화자의 기준점까지 청자가 문을 닫고도 들어올 수 있는 (나)는 충분히 문법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청자가 문을 닫고는 들어올 수 없는 (가)는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 닫고 나가.”도 청자가 방 안에 있을 때는 성립할 수 없고, 청자가 방 바깥쪽에 있을 때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표현들은 최호철(2015)에서 기술하는 것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또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아이가 부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느냐고 물을 때, 부모가 “응. 문 닫고 들어와.”라고 말하기 위하여 아이의 발이 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이 또한 자신이 문 안쪽으로 들어간 후에야 이 말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표현의 사용 범위를 구분하고자 한 최호철(2015)과 달리 한국어 사용자에게 이 표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미가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문법적, 의미적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고” 자체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찾자 한 김지영(2012)의 접근방식을 이어 간다. 다만, “-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또 다른 새로운 표현이 생기면 의미를 계속 첨가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은 지양한다. 대신, 다른 연결어미와 구분되는 “-고”의 특성, 즉 무표성으로 인해 “문 닫고 나가.”의 의도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다음 절에서는 “문 닫고 나가.”의 선행행절의 역할을 알아본다.<sup>1)</sup>

### 3. “문 닫고 나가.”의 선행절과 후행절

이 절에서는 우선 “문 닫고 나가.”의 문장 의미를 결정짓는 후행절의 기능을 먼저 알아본다. 그 후에 선행절의 화용적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전체 발화의 목적과 의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보통 “-고”의 계기성을 반영한 접속문은 “자습하고 집에 가.,” “야구하고 치과에 가.”처럼 선행절에 기술된 사항이 시간상으로도 먼저 발생하는 도상성을 갖기 쉽다(Sweetser, 1990). 그러나 “문 닫고 나가.”는 이러한 일반적인 도상적 이야기 순서(iconic narrative order)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비논리적으로 보인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선행행절의 순서를 바꾸어 (2a) “나가고 문 닫아.”라고 말한다면 ‘문 닫고 나가’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보통의 도상적 이야기 순서를 따르게 되므로 논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 “문 닫고 나가.”가 모순적이지 않게 들리는 이유에 대하여 본 논문의 한 심사위원은 “-고”가 양태의 부사절을 구성하여 후행절을 수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박소영(2000: 169-170)은 양태를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 행해질 때의 주체의 자세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양태의 “-고” 절에 결합되는 용언에는 자세나 표정을 나타내는 신체동사(예, “얼굴을 묻고 울고 있는데”), 소유동사(예, “목걸이를 손에 쥐고 이틀을 앓아 있다”), 착용동사(예, “붉은 스웨터를 입고 나와”), 동반동사(예, “아들 데리고 야구장에 다니는”) 등이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문 닫고”가 이러한 양태를 나타내는 용언 중 어디에 속하는지, 과연 “문 닫고”에 양태의 의미, 즉 주체의 자세나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더욱이, 이 글이 문제 삼는 “-고”를 이렇게 양태의 의미로 본다 하더라도, “문 닫고 나가.”의 두 술어의 순서가 사건발생의 순서와 뒤바뀌어 나타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도상적 이야기 순서의 위배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1) a. 문 닫고 나가.  
b. [[문 닫고] 나가]
- (2) a. 나가고 문 닫아.  
b. [[나가고] 문 닫아]

그렇다면 “문 닫고 나가.”의 구조 (1b)와 “나가고 문 닫아.”의 구조 (2b)를 가진 두 개의 발화가 아래의 서로 다른 질문 (3), (4)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문 닫고 나가.”를 “나가고 문 닫아.”로 바꾸어 말해도 무방한지 알아본다.

- (3) 문은 누가 닫았어?  
a. 형이 닫고 나갔어.  
b. 형이 나가면서 닫았어.
- (4) 형은 어디 갔어?  
a. 몰라. 문 쾡 닫고 나갔어.  
b. (?)몰라. 나가면서 문 쾡 닫았어.

우선 질문 (3) “문은 누가 닫았어?”에 대한 답변으로는 (2b)의 구조를 가진 (3b)뿐 아니라 (1b)의 구조를 가진 (3a)도 역시 적절해 보인다. (3b) “형이 나가면서 닫았어.”를 먼저 살펴보면, 문을 닫는 행위의 주체인 “형”이 문장의 주어로 쓰이고, 시제와 종결어미가 결합한 “닫았어”가 후행절의 술어로 쓰임으로써 문을 닫은 행위자(agent)를 찾는 질문 (3)에 대하여 문장 전체가 의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 알맞은 답변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매우 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런데 (3a) “형이 닫고 나갔어.”는 “나갔어”를 후행절의 술어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질문 “문은 누가 닫았어?”에서 “누가”뿐 아니라 “문”도 초점을 받고 있는(in focus) 요소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sup> Gundel et al.(1993)에 따르면 이 초점을 받고 있는 요소인 “문”은 한국어에서 그 다음 발화에서 영목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실제로 (3a)에서 “문”은 “닫고”의 목적어로서 생략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영지시어로 나타난 ‘문’은 이 문장에서 화제(topic)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생략되지 않은 문장의 나머지 요소인

2) Gundel et al.(1993)은 영어와 일본어를 포함한 5개의 언어에서 지시표현의 인지적 지위(cognitive status)에 계층적 순서를 부여하고 이를 기지성 계층(givenness hierarchy)이라고 칭하였다. 그 순서는 in focus {it} > activated {this, that, this N} > familiar {that N} > uniquely identifiable {the N} > referential {indefinite this N} > type identifiable {a N}과 같고, 이 순서의 가장 처음에 있는 in focus(초점을 받고 있는) 요소는 청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한국어 같은 경우 영지시어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형이 닫고 나갔어.”가 이 화제에 대한 논평(comment)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절이 실제 사건의 순서와 반대로 배열되어 있을지라도 (3a)가 “문은 누가 닫았어?”에 대한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 이와 같이 (3a)와 (3b)는 각각 (1a)와 (2b)의 상반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둘 다 “문은 누가 닫았어?”에 대한 답변으로 손색이 없는 것을 보면 “문 닫고 나가.”를 대신하여 “나가고 문 닫아.”로 말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sup>3)</sup>

하지만 (3)과 달리 (4) “형은 어디 갔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의 두 가지 구조가 차이를 보여, 일반적인 도상성을 가진 (4b) “몰라. 나가면서 문 쾡 닫았어.”가 아닌 (4a) “몰라. 문 쾡 닫고 나갔어.”가 오히려 적절한 답이 될 수 있다. 이는 (1a)와 (2b)의 차이가 단순히 두 절의 순서의 차이가 아니라 후행절이 통사적으로 일정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권재일(2012)은 접속문의 시제법에 대한 설명에서 선행절에 시제 어미가 결합할 수는 있으나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후행절의 시제에 의존하여 해석된다고 하였다. “문 닫고 나가.”의 경우에도 “문 닫았고 나갔어.”, “문 닫겠다고 나가겠지?”처럼 시제어미가 선행절과 결합하면 선행행절을 나란히 나열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므로 원래의 의미를 유지하려면 “문 닫고 나갔어.”, “문 닫고 나가겠지?”처럼 시제어미가 후행절과만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절의 범위에 대한 연구에서 유현경(2015)은 후행절의 범위를 서술어에 결합된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문 닫고 나가.”를 비롯한 “문 닫고 나갔어.”, “문 닫고 나가겠지?” 등의 표현에서 후행절은 “나가,” “나갔어,” “나가겠지” 등과 같이 시제와 종결어미가 결합된 것으로서 해당 문장 전체에서 서술의 역할을 함을 뜻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형의 행방을 묻는 “형은 어디 갔어?”라는 질문에 대하여 (4a) “몰라. 문 쾡 닫고 나갔어.”가 자연스러운 답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형의 행방의 내용을 담은 동사에 시제와 서술의 종결어미가 결합한 “나갔어”가 후행절에 쓰이며 전체 문장이 형의 행방에 대한 서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4b) “몰라. 나가면서 문 쾡 닫았어.”가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는 형의 행방이 아닌 행동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닫았어”가 후행절에서 문장 전체의 서술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호응하지 않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후행절의 이러한 서술로서의 역할이 (3) “문은 누가 닫았어?”에 대한 두 답변에서는 부각되지 않아 “문 닫고 나가.” 대신 “나가고 문 닫아.”라고 말해도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질문 (4)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의 적절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문 닫고 나가.”는

3) 한 심사위원은 (3a)와 (3b)의 의미나 문법성의 차이 없이 자유로운 어순 변경과 달리, (“뭐 읽었어?”에 대한 답으로) “논문 읽고 일찍 잤어.”는 적합한 답이 되지만 “일찍 자고 논문 읽었어.”는 그렇지 않음을 들며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는 각각의 예에서 두 사건의 발생 순서(즉, 순차적 또는 동시적 발생)와 관련되기도 하겠지만, (3b)에서는 연결어미가 “-고”가 아닌 “-면서”인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면서”는 동시성을 명시적으로(즉, 유표적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 “-고”는 이러한 명시성이 없다. 이러한 형태적으로 상이한 연결어미로 인해 두 경우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나가’라는 명령문이고 “나가고 문 닫아.”는 ‘문 닫아’라는 명령문이라는 점에서 두 표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문 닫고 나가.”의 두 절이 보통의 도상적 이야기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후행절의 문장 전체에서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두 절의 순서를 바꿀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화자와 청자가 문장 전체를 ‘문 닫아’가 아닌 ‘나가’라는 명령으로 이 발화를 사용하고 이해한다는 뜻이므로 “-고”에 역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발화에서 선행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고찰해 본다. 선행절 “문 닫고”는 문법적으로 대등접속문 “문 닫고 나가.”의 선행절이라는 것 외에는 후행절과 의미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단정지을 수 없다(김지영, 2012). 이에 본 논문은 명령문에서 사용되는 담화표지 “좀”을 사용하여 “문 닫고”의 화용적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송인성·신지영(2014)은 담화표지 “좀”이 발화의 명제적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생략되어도 무방하지만 이것이 사용되면 화용적인 새로운 기능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경희(2004)가 제안한 “좀”의 기능 중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명령이나 요청을 강조하기’가 포함된다. 또한 “좀”이 사용되는 위치와 관련하여 안주호(2009)는 선행하는 단어와 휴지 없이 결합되고, 발화의 중간이나 뒤에 나타나서 함께 등장하는 말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이제, 아래 (5), (6)에서 “좀”이 사용되는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본다.

- (5) 춤추고 노래해. (나열 관계)<sup>4)</sup>
- a. \*춤 좀 추고 노래해.
  - b. \*춤추고 좀 노래해.
  - c. 춤추고 노래 좀 해.
  - d. 춤추고 노래해 좀.
- (6) 밥 먹고 나가. (계기의 시간 관계)
- a. 밥 좀 먹고 나가.
  - b. 밥 먹고 좀 나가.
  - c. 밥 먹고 나가 좀.

(5) “춤추고 노래해.”는 선행행절을 대등하게 나열하는 접속문으로, 애초에 둘 중 어느 한 절만을 강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담화표지 “좀”이 “춤추고”의 중간이나 뒤인 (5a)과 (5b)의 위치에 쓰이면 ‘노래하기 전에 춤을 먼저 추어라’ 혹은 ‘노래할 때 춤을 꼭

4) 만약 어떤 이가 음악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뻗뻗이 서서 노래만 하고 있는 경우에 청중에서 (5a) “춤 좀 추고 노래해.”나 (5b) “춤추고 좀 노래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춤추고”와 “노래해”를 나란히 나열하는 의미보다는 ‘춤을 추면서 노래해’라는 동시적 시간 관계의 의미를 띄게 되고, “좀”은 선행절을 강조하게 된다.

추어라는 식으로 선행절을 강조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므로 원래의 나열 관계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화자의 요청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5c,d)처럼 후행절인 “노래”나 “노래해” 뒤에 “좀”을 사용해야 한다.

(5)와 달리 (6) “밥 먹고 나가.”에서 “-고”는 뚜렷하게 계기의 의미 관계를 갖고 있어서 선행절의 내용인 밥 먹는 일이 후행절의 내용인 나가는 일보다 먼저 일어나기를 권하고 있다. 여기에서 담화표지 “좀”은 (5c,d)에서처럼 후행절 “나가”의 뒤(즉, (6c))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선행절 “밥 먹고”의 중간((6a))이나 뒤((6b)), 어디에서든 쓰일 수 있다. 아울러, 이 중 어느 위치에서도 선행절 ‘밥 먹고’를 강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담화표지 “좀”이 사용되는 위치는 (강제나 억양 등 음성적인 자질을 제외하고) 통사적 구조와 의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문 닫고 나가.”에서는 “좀”이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살펴본다.

- (7) a. 문 좀 닫고 나가.
- b. 문 닫고 좀 나가.
- c. 문 닫고 나가 좀.

(7a)에서 “좀”은 “문”의 뒤에 쓰이고 (7b)에서는 “닫고”의 뒤에 쓰이며 (7c)에서는 “나가”의 뒤에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어디에 쓰여도 “좀”은 “문 닫고 나가.”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선행절 “문 닫고”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문 닫고 나가.”는 (5) “춤추고 노래해.”처럼 선행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나열관계 접속문이 아니라 (6) “밥 먹고 나가.”처럼 비대칭 관계에 놓인 접속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에서는 선행절 “밥 먹고”를 후행절 “나가”보다 시간상 먼저 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문 닫고 나가.”에서는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시간상으로 먼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의 목적이 두 절 간의 시간적 순서와는 무관할 수밖에 없다. 다만, 화자의 명령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좀”이 (7)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문 닫고”를 강조함을 근거로, 화자의 주요 목적이 ‘문 닫으라’는 명령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문 닫고 나가.”에서의 선행절은 (5) “춤추고 노래해.”나 (6) “밥 먹고 나가.”에서처럼 후행절과의 의미 관계가 나열이나 동시의 시간 관계 등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공적으로 화자의 주요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문 닫고 나가.”는 ‘나가’라는 명령문이므로 “나가고 문 닫아.”로 대체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후행절과의 관계를 떠나 선행절 “문 닫고”가 화자의 주요 목적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결어미 “-고”가 (5), (6)같은 여타의 접속문과 마찬가지로 “문 닫고 나가.”에서도 선어말 어미의 결합에 대한 문법적 제약에는 관여하지만, 다른 접속문에서와 달리 선행절 간의 의미를 특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접속문에 쓰인 연결어미가 어떻게 두 절 사이의 의미를 특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의미를 특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당 문장을 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 다음 절에서는 다른 연결어미와 구별되는 “-고”의 특징과 “문 닫고 나가.”를 비롯한 다른 문장들에서 쓰인 “-고”의 역할에 대하여 논한다.

## 4. 연결어미 “-고”의 무표적 특징

### 4.1. “문 닫고 나가.”에서의 “-고”

이 절에서는 “문 닫고 나가.”의 “-고”의 자리에 다른 연결 어미를 대신 사용할 경우에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문 닫고 나가”를 의도한 대로 사용하고 별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고”가 가진 무표적 특성에 있음을 논한다.<sup>5)</sup>

아래 (8)과 (9)는 “문 닫고 나가.”에서 다른 요소는 그대로 둔 채 이 문장의 해석과 가 장 관계가 깊은 연결어미 “-며,” “-면서”와 “-고서”를 각각 “-고”의 자리에서 사용한 것이다.

(8) 문 (좁) 닫으며/닫으면서 (좁) 나가 (좁).

(9) #문 닫고서 나가.

먼저 (8) “문 닫으며/닫으면서 나가.”에서는 담화표지 “좁”을 사용할 경우에 괄호 안에 표시한 어느 위치에서도 ‘문 닫으라’는 명령을 강조할 수 있고, 또 전체가 ‘나가’라는 명령 문이라는 점에서는 “문 닫고 나가.”와 다른 점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장이 “문 닫고 나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문 닫고 나가.”는 청자의 문에 대한 위치와 관계없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지만 “문 닫으며/닫으면서 나가.”는 청자의 위치에 따라 이 표현이 타당한 명령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문 닫고 나가.”는 청자가 아직 방 안쪽에 있거나, 문손잡이를 잡은 채 방을 벗어나는 중이거나, 이미 방을 벗어난 후 등 출입문의 근처에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지만, (8) “문 닫으며/닫으면서 나가.”는 청자가 이미 방을 벗어난 후에는 문을 닫는 행위와 나가는 행위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8) 화행의 적정조건(felicity condition)이 지켜지지 않아 타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연결어미 “-고” 역시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를 나열하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이를

5) 연결어미 “-고”는 접속문 외에도 보조동사 구문을 구성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고 있,” “-고 싶” 등), 보조동사 구성에서 “-고”는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상적 이야기 순서나 무표성의 여부를 따질 수 없으므로 이 논의에서 제외한다.

사용한 “문 닫고 나가.”가 (8)보다 더 넓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며,”“-면서”와 달리 동시성을 부각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9) “문 닫고서 나가.”는 “-고서”의 뚜렷한 계기성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고”에도 “-고서”와 마찬가지로 후행절의 행위가 선행절에 뒤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기술하는 계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 닫고 나가.”는 누군가 “문을 닫고 나서 어떻게 나가?”라고 반문하지 않는 이상 선행행절이 실제와 역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이 금방 인식되지 않는 데 반해, “-고서”를 사용하여 (9) “문 닫고서 나가.”라고 말하면 두 절의 이러한 비논리적 순서를 매우 명확히 표면화한다. 그러한 이유로 (9)는 부자연스럽게 들리고, 실제로도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요컨대, (8)의 “-며,” “-면서”는 “-고”에 비해 더 뚜렷한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해석 또한 선행행절의 동시적 이행으로 제한되며, (9)는 “-고서”가 가진 명백한 계기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문 닫고 나가.”에서는 “-고”가 동시, 계기 등의 의미를 다 포함하면서도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광범위하고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 닫고 나가.”의 선행행절 배열이 실제와 반대의 순서를 갖고 있지만 보통은 이것이 잘 인식되지 않는다면, “-고”의 의미가 어느 하나로 특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또 이 표현이 ‘문 닫으면서 나가,’ ‘나가면서 문 닫아,’ ‘나가서 문 닫아’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나 하는 모든 현상의 이유는 결국 “-고”에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고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부각되지 않을 수 있는 특성, 즉 “무표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 무표성은 “-며,” “-면서,” “-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에만 국한되는 특성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5절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 4.2. 무표적 연결어미 “-고”의 용례

이 절에서는 연결어미 “-고”의 특징이 여타의 표현의 해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문 닫고 나가.” 이외에 기존의 시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두 종류의 발화를 살펴본다. 다음 문장을 보라.

(10) 문 열고 나가.

보통 상황에서 닫힌 공간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므로 (10)을 선행행절의 원래의 순서대로 ‘닫힌 문을 열고서 나가’로 해석하는 것 말고도 ‘나가서 문을 닫지 말고 열어 두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후자는 “문 닫고 나가.”와 마찬가지로 선행절 “문 열고”와 후행절 “나가”를 뒤바꾸어야 가능해지는 해석이다. 그런데 만약 “-고”에 역순으로 해석하기와 같은 기능을 부여하여(김지

영, 2012) 이를 해석하고자 한다면 ‘나가고 문 열어’라는 해석을 얻게 될 텐데, 이는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뜻이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을 닫지 말고 열어 놓아라’는 특별한 의미를 추가하는 절차가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행행절의 동사의 의미 길이(최호철, 2015)를 고려한다면 청자가 문 안쪽이나 바깥쪽 어디에 있어도 문을 여는 동작이 ‘나가의 의미 길이 안에 포함되므로 “문 열고 나가.”는 언제나 수용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을 닫지 말고 열어 놓아라’는 의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식의 해석은 “문 열고 나가.”가 가진 구조를 간과할 뿐 아니라 발화의 특수성에 따라 특별한 절차를 추가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는 “-고”의 무표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문 닫고 나가.”와 마찬가지로 “문 열고 나가.”도 전체적으로 ‘나가’라는 명령문이므로 선행절을 역순으로 해석할 리가 없고, 선행절이 담화표지 “좀”에 의해 강조될 수 있으므로 화자의 주요 목적이 ‘문 열고’를 요청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문 열고 나가.” 대신 “문 열면서 나가.”나 “문 열고서 나가.”라고 말한다면 그 해석은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무표적 연결어미 “-고”는 이 발화를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여지를 부여한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청자는 “문 열고 나가.”를 ‘네 앞의 (바로) 그 문을 열고 나가와 같이 도상적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이 불필요한 상황, 즉 어떤 문을 열고 나갈지가 명백한 상황에서 청자는 이것과 다른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즉, 이 발화의 청자는 선행행절의 관계를 동시, 순차, 역차 등 어느 하나로 특정할 필요 없이 “나가”라는 후행행절의 명령을 수용하되 선행행절 “문 열고”가 그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선행적 행동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면 ‘열고 나간 문을 닫지 말고 연 채로 두어라’는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고”가 의미적으로 무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문 닫고 나가.”와 같이 선행행절이 사건의 순서와 뒤바뀐 듯 보이는 경우뿐 아니라 (10)처럼 의미를 추가해야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문 닫고 나가.”나 “문 열고 나가.”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례적으로 보이는 발화의 예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 (11) 꼼짝 말고 손 들어.
- (12) 입 다물고 밥 먹어.

(11)과 (12)는 각각 후행행절의 술어인 “손 들어”와 “밥 먹어”가 전체 문장의 화행을 결정하여 ‘(무기를 들거나 달아나는 등) 다른 행동은 하지 말고 손 들어’와 ‘말하는 것을 멈추고 밥 먹어’로 해석되는 발화이다. 그런데 “문 닫고 나가.”, (“나가서 문을 닫지 말고 열어 두어라”는 뜻으로) “문 열고 나가.”가 축어적으로 선행행절이 뒤바뀐 듯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11), (12)는 선행절의 명제내용이 축어적으로 모순 관계에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11)에서 선행절의 명령 ‘꼼짝 말고’를 따르면 후행절 ‘손 들어’를 행할 수 없고, 후행절 ‘손 들어’를 따르면 ‘꼼짝 말고’라는 명령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12)에서도 선행절의 명령 ‘입 다물고’를 수행하면 후행절 ‘밥 먹어’를 행할 수 없고, 후행절의 명령 ‘밥 먹어’를 따르면 선행절 ‘입 다물고’를 행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모순 관계로 인해 이 두 예는 담화표지 “좁”을 사용하여 의미나 통사 구조의 특징을 밝혀낼 수도 없다. 이는 다른 접속문에서는 담화표지 “좁”이 사용되는 위치가 그 강조되는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선행절의 관계를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었지만, 아래 (11'), (12')에서 보듯이 “꼼짝 말고 손 들어.”와 “입 다물고 밥 먹어.”에서는 “좁”이 이러한 제약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꼼짝 말고 손 들어.”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좁”을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특정한 상황(예, 다소 어눌한 화자, 동일 문장의 수차례 반복)을 가정하고 이를 사용해보자.)

(11') 꼼짝 (좁) 말고 (좁) 손 (좁) 들어 (좁).

(12') 입 (좁) 다물고 (좁) 밥 (좁) 먹어 (좁).

(11'), (12')에서 “좁”은 각 선행절 “꼼짝 말고”와 “입 다물고”의 중간이나 뒤에서는 선행절의 내용을 강조하고 각 후행절 “손 들어”와 “밥 먹어”의 중간이나 뒤에서는 후행절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좁”이 선행절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11), (12)의 선행절이 “춤추고 노래해.”와 같은 대등한 나열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후행절 역시 강조할 수 있는 것을 보아서는 ‘문 닫고 나가’와 같은 비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그렇다고 해서 후행절만을 강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이는 “좁”이 선행절을 강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두 발화의 선행절은 의미적으로도 모순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통사적으로도 “-고”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두 절 중 어느 하나가 더 지배적인 비대칭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1), (12)를 이해하는 데 이러한 선행절의 의미 관계와 구조에 대한 정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같이 (11)과 (12)는 의미적, 구조적으로 여타의 발화들에 비해 이례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이 발화의 이해에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김지영(2012)의 방식을 빌어 연결어미 “-고”에, 가령 “선행절과 후행절이 의미적으로 모순될 때 후행절의 명령만 따르라”는 식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는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의미 항목을 추가하는 임기응변식 해결책이 되므로 지양해야 할 일이다. 최호철(2015)의 제안을 따라 동사의 의미 길이를 헤아려 해결하고자 해도 “손을 들다”의 의미 길이 안에 ‘꼼짝 말다’가 포함될 수 없고, “밥을 먹다”의 의미 길이 안에 ‘입을

다물다가 포함될 수 없으므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아가 어떤 맥락과 어떤 접속문에서 동사의 의미 길이를 판단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고”가 각 발화의 선행행절을 논리적으로 연결은 하되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각하지는 않는 무표성이 있다고 하면 청자는 각 후행절의 술어인 “손 들어”와 “밥 먹어”의 명령을 수용하면서도 선행절의 명령인 ‘꼼짝 말고’와 ‘입 다물고’를 의미적 충돌 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발화들에서 “-고” 대신 “-며”나 “-고서”가 쓰여 “꼼짝 말며/꼼짝 말고서 손 들어,” “입 다물며/입 다물고서 밥 먹어”와 같이 말한다면 그 때는 선행행절 간의 모순 관계가 부각되어 해석이 불가능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고”의 의미 중 어떤 것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이 “-고”가 (9), (10)의 해석에 기여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가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연결어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서 아무런 의미를 부각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다음 절에서 다룬다.

## 5. 언어학적 무표성과 연결어미 “-고”

본 절에서는 “문 닫고 나가.”와 같은 표현에서 “-고”가 지닌 의미가 부각되지 않는 현상을 무표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5.1절에서는 무표성 개념을 개관하고, 5.2절에서는 본 논문의 주된 주장인 무표성에 근거한 연결어미 “-고”의 기능을 설명한다.

### 5.1. 무표성 이론

무표성 및 유표성의 언어학적 구별은 프라하 학파의 Trubetzkoy(1939/1969)에서 시작되었다. Trubetzkoy는, 예를 들어, /t/와 /d/처럼 같은 범주(즉, 치경폐쇄음)에 속하면서 단 하나의 자질(즉, 유성, 有聲, voicing)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한 쌍의 음소(즉, 최소대립쌍) 중에서 하나의 음소(예, 무성음)만이 일정한 환경(예, 독일어의 음절말)에서 나타나 두 음소 간의 대립이 중화되는(neutralized) 현상을 어떤 특정한 특성 또는 표시(mark)(이 경우에는 유무성)의 유무(privativity)로 설명할 수 있음을 통찰하였다. 독일어 치경폐쇄음의 경우에 음절말 위치에서 무성(無聲)이 무표적(unmarked)이기에, 즉, 무성의 표시가 없기에, 유표적인 유성음이 아닌 음소 /t/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Jakobson(1932/1984)은 무표성에 대한 Trubetzkoy의 개념을 확대하였다. Trubetzkoy의 무표성 개념에 따르면, 한 범주 내의 유표적인 요소는 어떤 특정 자질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이에 상응하는 무표적인 요소는 그 자질의 부재(privative)를 가리킴으로써 유표적 멤버의 반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Jakobson은 무표성이 유표적, 무표적 멤버 둘 다 속한 해

당 범주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그 정의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Jakobson은 Trubetzkoy의 음소에서의 유표성에 대한 통찰을 의미, 형태, 문법 등의 현상으로 확대하였다. Jakobson은 러시아어의 ‘배우자’를 뜻하는 명사를 예로 든다. 이 명사의 격 변화의 범주에서 유표적인 멤버인 여성 명사의 주격 *suprúga*와 남성 및 중성 명사의 여격 *suprúgu*, 그리고 도구격 *suprúgom* 등은 각각 해당 의미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반면, 무표적 멤버인 *suprug*는 유표적 멤버가 갖는 이러한 표시의 부재를 나타냄으로써 여성형의 반대인 남성형과 여격, 도구격이 아닌 주격을 의미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유표/무표적 멤버 모두가 속한 ‘배우자’라는 범주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영어의 예에 적용한 Greenberg(1966)는 *man*(‘남자/사람’)과 *woman*(‘여자’)이라는 어휘의 대립을 제시한다. 유표적 멤버인 *woman*은 ‘여성’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반면, 무표적 멤버인 *man*은 ‘여성’의 부재로 인해 ‘남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두 멤버 모두가 속한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연관된 두 어휘의 쌍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어휘소의 유표성이 *lion-lioness*처럼 형식적 표시로 구별되기도 하고, 이와는 달리 *high-low*처럼 그 표시가 형식적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하다. 이에 대해 Lyons(1977)는 무표, 유표의 구별이 분포적 제약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high-low*의 대립에서 무표적 멤버인 *high*만이 “How high is the mountain?”처럼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쓰임으로써 *low*에 비해 더 넓은 분포를 갖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high-low*의 대립은 중화되고, *high*는 ‘높이’를 가리키는 총칭적(*generic*)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Greenberg(1966)는 이와 같이 대립적인 관계의 두 멤버 중 하나가 유표적 멤버에 대한 반대의 멤버를 가리키거나 범주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무표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인간 사고의 일반적인 본성으로써 언어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작동되는 설명력이 높은 개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유표, 무표의 구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두 개의 대립하는 음운, 형태, 문법, 어휘 등 언어학적 범주 내에서의 특정 자질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빈도수의 차이나 언어 습득의 용이성과 퇴화와의 관계 등 언어 외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구별 짓기도 한다. Greenberg(1966)는 산스크리트, 라틴어, 러시아어로 된 성서 및 문학작품에 나오는 명사, 대명사, 동사 등의 수 및 격변화 등을 분석하여 무표적인 것이 유표적인 것보다(예, 단수가 복수보다, 복수가 양수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수치로 보임으로써 빈도수와 유표성의 상호 연관성을 부각하였다.

문법의 습득과 유표성의 관계에 대하여 Chomsky(1981)는 유표성이 보편 문법의 매개변수에 선행 구조를 부과하여 무표적인 매개변수는 먼저 습득되고 유표적인 매개변수는 언어 자료에 명시적으로 나타날 때에만 습득된다고 하였다. Jakobson(1941/1968)은 음운론적 관점에서 음소의 이분법적 변별 자질의 집합에 유표성에 따른 계층적 체계를 부여하여 이 계층의 위에 있는 무표적인 음소가 계층의 아래에 있는 유표적인 음소보다 먼저 습득된다고

제안하였다(예, 전음(front = labial + dental) > 연구개음(velar)). 예를 들어, Jakobson은 독일어를 습득하는 어린이가 Kopf(‘머리’)의 /k/를 /t/로 발음하거나 영어를 습득하는 어린이가 cut의 /k/를 /t/로 발음하는 것은 치음이 연구개음보다 더 무표적이고 습득이 더 쉽다는 것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sup>6)</sup> 결국 언어적 현상의 여러 범주에서 무표적 멤버는 유효적 멤버와의 대립이 중화되는 곳에서 쓰일 뿐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사용 빈도 또한 높을 수밖에 없고(Waugh, 1982),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도 무표적 멤버는 유효적 멤버에 비해 더 일찍 사용되기 시작하여 우리의 뇌에 더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5.2. 연결어미 “-고”의 무표성

본 절에서는 “-고”가 이러한 무표성의 개념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지금까지 구어 대 문어, 주절 대 종속절, 긍정문 대 부정문 등 다양한 언어학적 층위에서 무표 대 유효의 구별을 시도한 연구는 있지만(Givón, 1991), 연결어미 혹은 (and, but 등의) 접속사의 범주 내에서 토큰(token) 간의 유효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 “-고”의 무표성을 입증할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위에서 살펴본 전통적인 유효성의 몇몇 기준, 즉 기능의 비대칭성, 빈도의 차이, 습득 등이다.

아래 표 1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 『그랜드 국어사전』(운평어문연구소, 1992), 『옛센스 국어사전』(이희승, 1974/1995)의 세 사전을 종합하여 “-고,” “-며,” “-면서,” “-고서”의 의미와 예시를 나열한 것이다.<sup>7)</sup>

- 6) Jakobson은 가장 나중에 습득되는 음소는 그 고유의 복잡성으로 인해 퇴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어증을 겪는 사람의 언어 퇴화 과정이 언어 습득 과정의 거울상(mirror image)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는데, Durand & Prince(2015)는 예를 들어 프랑스의 브로카 실어증 환자가 crocodile (‘악어’) /kʁokodil/, crapaud (‘두꺼비’) /kʁapo/, casquette (‘모자’) /kasket/를 각각 /tʁokodil/, /tʁapo/, /tasket/로 발음하는 것은 유효적인 연구개음 /k/가 무표적인 치음 /t/보다 더 일찍 손실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Durand & Prince (2015)는 이러한 대치현상이 실어증 환자의 운동 능력 소실로 인한 것인지 음운론적 능력의 소실로 인한 것인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퇴화과정의 비대칭적 특징을 보이는 현상이라 하였다. 또한 브로카 실어증의 가장 큰 특징이 기능어의 소실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Yes ... ah ... Monday ... er ... Dad **and** Peter H (화자 본인), **and** Dad .... er ... hospital ... **and** ah ... Wednesday ... Wednesday, nine o'clock ... **and** oh ... Thursday ... ten o'clock, ah doctors ... two ... an' doctors ... **and** er ... teeth ... yah. (Goodglass & Geschwind, 1976)”의 예에서 Peter H가 and를 다수 사용한 사실은 접속사나 연결어미 등 모든 기능어가 한꺼번에 소실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오래 사용되는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7) 표 1에 인용한 사전에는 “-고”에 동시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으나, 남기심(1995), 윤평현(2005) 등과 같은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에 동시(혹은 시간적 나열)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1. 기능의 비대칭성: 연결어미 “-고”와 다른 어미의 기능 비교

의미	-고	-며	-면서	-고서
나열: 사실, 동작, 상태의 나열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남편은 친절하며 부인은 인정이 많다.		
지속: 앞 절의 동작이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	언니는 오늘 새 옷을 입고 출근했다.			
동시: 움직임이나 사태가 동시에 겹쳐 있음		일하며 싸우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다.	
계기: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냄	할머니께서는 상한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			그는 나에게 일흔 눈짓을 하고서 나가 버렸다.
대립: 움직임이나 사태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			자기는 놀면서 남만 시킨다.	
이유/근거: 이유나 근거를 나타냄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었다.			
전제: 앞 뒤를 전제함				바보가 아니고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겠지.

이 표로부터 “-고”는 나열, 지속, 계기, 이유/근거 등 네 가지의 의미를, “-며,” “-면서,” “-고서”는 각각 두 가지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근거로 “-고”가 다른 어미들에 비해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다음 표 2는 2005년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결과의 일부로서, 이 조사는 1990년 이후에 출판된 문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여기에서 추출한 연결어미는 427가지에 달하고, 사용 회수는 전체 437,336회로 집계되었다.

표 2. 빈도의 비대칭성 1: 문어 텍스트에서의 “-고”와 다른 어미의 사용 빈도

연결어미	-고	-며	-면서	-고서	기타	합계
사용횟수	95,914	18,346	8,707	491	313,878	437,336
비율	21.9%	4.2%	2%	0.1%	71.8%	100%

이중 “-고”는 95,914회 사용되어 전체의 21.9%를 차지한 반면, “-며,” “-면서,” “-고서”는 이를 모두 합해도 그 비율이 6.3%에 그쳐 “-고”가 이 어미들에 비해 세 배 정도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3은 구어에서는 “-고”의 사용 빈도나 양상이 표 2와 다른 점이 있어 보기 위하여 대중에게 아주 친숙한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 속담에서의 연결어미의 빈도수를 조사한 것이다. 권승호(2020)의 속담사전에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등 260개의 속담이 소개되었는데, 이에는 총 25가지의 연결어미가 251회 쓰이고 있다. 이 중에서 “-고”는 65회(25.9%) 사용되었고, “-며,” “-면서,” “-고서”는 다 합하여 총 4회(1.6%)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빈도의 비대칭성 2: 구어 텍스트에서의 “-고”와 다른 어미의 사용 빈도

연결어미	-고	-며	-면서	-고서	기타	합계
사용횟수	65	3	1	0	182	251
비율	25.9%	1.2%	0.4%	0%	72.5%	100%

이를 통해, “-고”가 다른 어미들에 비해 더 빈번하게 사용된 양상은 문어 텍스트와 같으나, 구어 텍스트에서 “-고”가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는 습득에 있어서도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세 아동들이 사용하는 연결어미의 종류를 조사한 서희선·이승환(1999)은 나열, 동시, 계기의 의미로 사용되는 여러 연결어미 중에서 “-고”가 가장 일찍 습득되고, 그 기능도 나열, 동시, 계기, 대립 등으로 다양하며, 더 높은 빈도로 쓰이는 시기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조명환(1982)은 5명의 아동을 약 1세에서 2.3세까지 종단 관찰하여 기능어의 출현 순위와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아동들의 언어 획득 전략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두 명제를 병렬시키는 언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린이는 개념 구조에서 명제의 관계가 연결되면 그것을 나란히 산출하고 그 후에 연결어미가 등장한다. 조명환의 결과는 “-고”와 “-어서”가 “-며,” “-면서,” “-고서”에 앞서 습득됨을 보였다.

요컨대, 연결어미 “-고”는 나열 및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며,” “-면서,” “-고서”에 비해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더 빈번하게 쓰이며, 더 일찍 습득된다. “-고”의 이러한 특징은 앞서 살펴본 영어의 *man*이나 *high*같이 특정 언어학적 범주 내의 무표적인 요소의 특징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고”는 한편으로는 다른 연결어미들과 수평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나열, 지속, 계기, 이유/근거’(표 1 참조) 등 개개의 특정한 의미를 실현한다. 그에 더해, “-며,” “-면서,” “-고서” 등의 유표적 멤버보다 계층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표적 멤버를 포함하는 범주 전체를 가리킬 수 있으므로, 접속문의 두 절을 문법적 혹은 논리적으로 연결만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sup>8)</sup> 이처럼

8) 연결어미의 전체적인 의미 구조를 개관한 장경희(1995)는 사건 간의 상관 관계를 먼저 공존과 배타적 관계로 나누고, 공존 관계를 다시 의존과 비의존 관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비의존 관계를 시간, 대립, 동등 내지 유사 관계로 나누고, “-고,” “-며,” “-면서,” “-자,” “-나,” “-지만”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럼 의미적인 무표성을 지닌 “-고”는 “문 닫고 나가.”, “문 열고 나가” (“나가서 문을 열어 뒤”의 의미), “꼼짝 말고 손 들어.”, “입 다물고 밥 먹어.” 등 역순이나 모순적 내용을 담은 듯한 두 절을 의미적 충돌 없이 연결할 수 있다.<sup>9)</sup>

## 6. 결론

본고는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한 “문 닫고 나가.”의 선후행절의 문법적, 화용적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이 문장은 ‘나가’라는 명령문이므로 역순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두 절 사이의 의미가 나열, 동시 등 그 어떤 것으로 특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절이 화자가 강조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 결과 역순, 모순 등의 의미로 연결된 듯 보이는 접속문을 아무런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연결어미 “-고”가 가진 무표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Jakobson(1932/1984)과 Greenberg(1966) 등이 제안한 유표성 이론, 즉 한 범주 내의 무표적 요소는 유표적 요소에 비해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며, 더 일찍 습득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가 나열, 동시, 계기의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며,” “-면서,” “-고서”와 비교하여 무표적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어 연결어미에서의 유표성을 논하는 드문 연구로서,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다른 연결어미와 비교하여 “-고”를 무표적이라고 봄으로써 이해적으로 여겨지는 여러 접속문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넓혀 기여하고자 한다. 향후 “-고”뿐 아니라 “-어서” 등의 한국어의 다른 연결어미, 그리고 영어의 and, 프랑스어의 et, 독일어의 und 등 다른 언어의 접속사로 범위를 넓힌다면 기능어의 유표성과 문장 해석의 용이성에 대한 관계를 밝히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리고 이 비의존 관계 접속 어미의 의미 구조는 평면적이지 않고 계층적이라고 하였다. 장경희(1995)는 이중에서 “-고”가 비의존 관계 전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의미 관계에서도 “-고”가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고”가 쓰이면 어색해지는 특정한 영역에는 이에 적절한 고유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유표성에 의해 “-고” 외의 “-면서”같은 어미의 의미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장경희(1995)가 제안한 연결어미의 계층적 의미 구조에서의 초점은 계층적으로 우위에 있는 어미에서 어떻게 특정 어미가 분화되는가에 맞춰져 있다. 본고는 “-고”의 이러한 계층적 우위가 이의 무표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 9) 그렇다면, “-고”에 나열, 지속 등의 의미가 있듯이 무표적인 세부 의미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기본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무표적 의미(또는 기능)이 화용적으로 해석되어 나오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예를 들어, “How high is the mountain?”에서 high가 low의 반대 의미가 아닌 ‘높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의미론의 영역인지 화용론의 영역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이 문제는 향후 연구의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 (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Retrieved on Dec. 27, 2020, from [https://www.korean.go.kr/common/all/reportData/download.do?report\\_seq=1](https://www.korean.go.kr/common/all/reportData/download.do?report_seq=1)
- 권승호. (2020). *삶의 무기가 되는 속담 사전*. 서울: 지노.
- 권재일. (2012). *한국어 문법론*. 서울: 태학사.
- 김지영. (2012). ‘문 닫고 나가’: 한국어의 접속어미 ‘-고’에 대한 고찰. *언어와 정보사회*, 17, 85-100.
- 남기심. (1995).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 서희선, 이승환. (1999). 2-5세 정상 아동의 연결어미 발달. *언어척각장애연구*, 4(1), 167-185.
- 송인성, 신지영. (2014). 담화표지 {좀}의 기능과 형태운율적 특성의 실현 양상. *한국어학*, 62, 315-339.
- 안주호. (2009). 축약형 담화표지 “좀/막”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14, 199-223.
- 윤평어문연구소. (1992). *그랜드 국어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 윤평현. (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서울: 박이정.
- 이한규. (1999). 문닫고 나가라고?: 비논리의 논리. *언어연구*, 17, 59-66.
- 이희승. (1974). (1995 수정판). *옛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 장경희. (1995). 국어 접속 어미의 의미 구조. *한글*, 227, 151-174.
- 조명환. (1982). *한국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책략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주경희. (2004). ‘좀’ 문법화의 의미화용론적 연구. *국어교육*, 115, 433-454.
- 최호철. (2015). 문장 발화 “문 닫고 들어와.”의 의미 해석. *Journal of Korean Culture*, 30, 63-90.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Durand, J., & Prince, T. (2015). Phonological markedness, acquisition and language pathology: What is left of the Jakobsonian legacy? In C. Astesano & M. Jucla (Eds.), *Neuropsycholinguistic perspectives on language cognition: Essays in honour of Jean-Luc Nespoulous* (pp. 15-30). London: Routledge.
- Givón, T. (1991). Markedness in grammar: Distributional, communicative and cognitive correlates of syntactic structure. *Studies in Language*, 15(2), 335-370.
- Goodglass, H., & Geschwind, N. (1976). Language disorders. In E. Carterette & M. P. Friedman (Eds.), *Handbook of perception: Language and speech* Vol. VII (pp. 390-428). New York: Academic Press.
- Gundel, J. K., Hedberg, N., & Zacharski, R. (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69(2), 274-307.
- Jakobson, R. (1932/1984). The structure of the Russian verb. Reprinted in L. R. Waugh & M. Halle (Eds.), *Roman Jakobson: Russian and Slavic grammar: Studies 1931-1981* (pp. 1-14). Berlin: Mouton de Gruyter.
- Jakobson, R. (1941). *Kindersprache, Aphasie und allgemeine Lautgesetze*. Uppsala: Almqvist & Wiksell. Translated by A. R. Keiler. 1968. *Child language, aphasia, and phonological universals*. The Hague: Mouton.
- Lyons, J. (1977).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eetser, E.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ubetzkoy, N. S. (1939). *Grundzüge der Phonologie*. Prague: Prague Linguistic Circle. Translated by C. Baltaxe. 1969. *Principles of phonolog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augh, L. R. (1982). Marked and unmarked: A choice between unequals. *Semiotica*, 38, 299-318.

### 정인기

0410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인문대학 영문학부 영미어문전공 부교수  
전화: (02)705-8844  
이메일: inkiechung@sogang.ac.kr

### 김지영

0410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  
전화: (02)705-8037  
이메일: jcathykim@sogang.ac.kr

Received on February 9, 202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26, 2022

Accepted on March 31, 2022